

코이랄라 등 '만해대상' 4명 선정



제15회 만해 대상 수상자로
아누리다 코이
랄라(62) 마이
티 네팔 재단
이사장 등 4명
이 선정됐다고
만해사상실천
선양회가 1일
밝혔다.



부문별로는
평화부문의 코
이랄라 이사장
을 비롯해 실
전부문에서 스

리랑카의 고고학자인 시리세나 반다 헤티아랏차(72) 박사가 선정됐으며 문학부문에는 소설가 모엔(莫言·56)과 이근배(71) 시인이 공동 수상자로 뽑혔다.

평화부문 수상자인 코이랄라 이사장은 네팔 카트만두에 있는 '마이티 네팔' 재단을 이끌며 성노에 등으로 팔려가는 네팔 여성들과 소녀들의 인권을 위해 현신해왔다. 실천부문 수상자인 헤티아랏차 박사는 불교사와 고고학 연구를 통해 스티랑카 1000년간의 고대불교유적을 복원하고 당대의 불교 전개 과정을 연구해 왔다. 문학부문 공동 수상자인 모엔은 영화 '붉은 수수밭'의 원작이 된 장편소설 '홍까오랑 가족'의 저자로 현대 중국문학을 대표하는 작가다. 이근배 시인은 1961년 등단한 이후 50여년간 시와 시조를 창작하며 대한민국예술원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조영표 시의원 무등시장 상인회 감사패



광주시의회 조영표(민주당·
남구 1·산업건설위원회) 의원
이 지난 28일 광주시 남구 무등
시장 상인회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무등시장 상인회
는 조 의원이 '무등시장 문전성
시 프로젝트'에 깊은 관심을 갖
고 서민경제 활성화와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이날 감사패를 전달했다.

인사

국세청

◇고위공무원 승진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
장 정이종
◇부서사관 승진 ▲국세청 심사1담당관 황재윤
▲국세청 법규과장 김현준 ▲국세청 소비세과장
황용희 ▲국세청 조사1과장 박만성 ▲국세청 조사
2과장 서국환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
관 최진구 ▲광주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신재국
◇과장급 전보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문
희철 ▶서울지방국세청 징세과장 정용삼
◇초임세무서장 발령 ▲공주세무서장 김국현
◆목포대
▲인문대학 윤형숙(인문대학 문화인류학과)
▲경영대학장 박석호(경영대학 무역학과) ▲약학
대학장 한돌실(약학대학 약학과) ▲교양과정부장
조용호(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도서관장 양기
철(공과대학 멀티미디어공학과), ▲평생교육원장
이형재(인문대학 일어일문학과) ▲신문방송사 주
간 김선태(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양학제교
육원장 조영길(자연과학대학 해양수산자원학과)
▲기획처 부처장 이석인(경영대학 전자상거래학
과)

“희귀 야생화 끝까지 지킬겁니다”

내장산국립공원 백암사무소 박성배 자원보전과장

“희귀식물들의 마지막 피난처인 국립공원의 생물 종마저 훼손되면 결국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한국 특산식물들의 서식실태를 파악해 잘 보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성배(53) 내장산국립공원 백암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공원내를 순찰할 때는 항상 카메라 배낭과 삼각대를 쟁긴다. 쉬는 날에도 야생화의 개화시기에 맞춰 백암산은 물론 내장산, 지리산, 덕유산, 밀리 설악산과 오대산까지도 다리풀을 판다.

800여종 희귀식물 16년 내친구

백암산(높이 741m)만 해도 봄철에는 변산바람꽃·노루귀·가지복수초·꿩의바람꽃·만주바람꽃·얼레지, 여름철에는 진노랑상사화·백운란·비비추·누른하늘꽃·풀·쇠뿔투구꽃 등 800종에 달한다. 이처럼 16여 년에 걸친 꾸준한 작업결과 국립공원 내에 한국 특산식물과 수백 종의 야생화, 사계절 풍경이 그의 렌즈에 오르고 담겼다. 내장산, 백암산, 월출산, 변산, 다도해사무소(완도) 등 수년 주기로 옮겨지는 근무지도 사진작업에 많은 도움이 됐다.

지난 1982년 입사한 박과장은 1996년부터 본격적으로 카메라를 잡았다. 야생화를 일단 찍은 후 식물도감 등을 뒤져어 하나하나 이름을 익혔다. 특히 1998년 5월의 남장계곡 모티터링은 그를 오늘의 야생화 지킴이로 거듭나게 했다. ‘조개나물’과 같은 보릿빛꽃을 찍었는데, 이것이 1928년 일본인 식물학자에 의해 한 포기가 채집된 뒤 멸종된 것으로 알려졌던 ‘백양 더부살이’였던 것이다. 박과장은 환경부 지정 멸종 위기 식물인 ‘대홍袍’과 남방계 희귀식물인 ‘애기천’도 백암산 자락에서 찾아내는 성과를 올렸다.

독도에 울려퍼진 애국가와 아리랑

가수 김장훈 독도서 3·1절 페스티벌

3·1절인 1일 가수 김장훈이 ‘독도 원정대’ 200명과 함께 애국가 4절을 완창하며 콘서트를 열었다.

이날 오후 1시30분 독도에 도착한 김장훈은 오후 3시20분 무대준비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선착장에서 ‘독도 페스티벌’을 시작했다. 독도에서 대중 가수의 정식 콘서트가 열리기는 처음이다.

“뭘 준비 했습니까?”란 김장훈의 외침과 함께 독도 선착장은 축제마당으로 변했다. 김장훈은 사물놀이, 판소리와 함께 ‘쇼’와 ‘오페라’를 열창했고

‘난 남자다’를 부르며 특유의 ‘발차기’를 날렸다. 또 ‘첫 곡이 애국가였다면

엔딩곡은 이 곡이어야 한다”며 ‘아리랑’을 불러 가슴 뭉클한 장면을 연출했다.

김장훈은 이날 독도에 첫 발을 디딘 직후 한국 흥보전문가인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와 포옹을 한 뒤 무릎을 끊고 “만세”를 외쳤다.

그는 공연을 성사시키기 위해 서 교수와 손잡고 3개월 간 울릉군과 항만청, 독도경비대, 해양경찰청의 협조를 구하려 동분서주했다. 독도에 떠날 때까지 직접 섭외했다.

그러나 날씨부터 호의적이지 않았다. 당초 김장훈은 지난달 28일 독도로 향할 예정이었으나 기상 악화로 입



도를 하루 연기해 1일 오전 9시10분 강릉항에서 ‘씨스타호’를 타고 출발했다. 이 배에는 서 교수, 세종대 호사가 유지 교수, 박크 회원 및 한국대학생원봉사단체인 V원장대로 구성된 참가자들로 힘을 모았다. ‘독도 원정대’, 취재진 등 350명이 탑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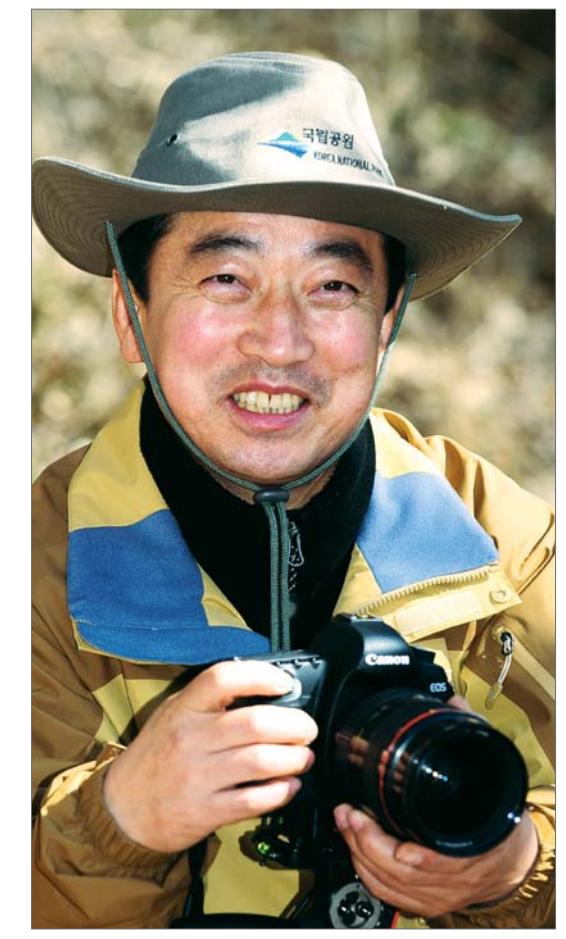
서경덕 교수는 “독도 문제의 가장

하지만 박과장은 국립공원이 아닌 일반 지역의 경우 희귀 식물서식지가 훼손되는 것을 자주 보게 돼 안타까운 심정이다. ‘백양 더부살이’ 역시 국립공원 밖인 정읍시 내장천 하천둔치에서 200여 개체 군락지가 발견됐으나 가을철 단풍 행락객을 위한 국도 29호선 우회도로 공사과정에서 아스팔트에 깔리며 송두리째 사라지고 말았다.

7일부터 광주일보에 사진 등 연재

박과장은 “등산객들의 의식변화와 함께 지자체의 적극적인 보호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과장은 지난해부터 국립공원내 특산식물 등을 동영상으로 기록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주력 카메라인 캐논 5D 마크 2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해 백암산 구석구석을 누비며 촬영하고 있다. 내년까지 1시간 분량의 자연 다큐멘터리를 만들고자 한다. 박과장은 7일부터 광주일보에 ‘국립공원의 야생화’를 사진과 함께 연재할 예정이다. /글·사진 = 송기정 기자 song@



김용환 前순천대교수 장학금 1억원



순천대학교(총장 임상규) 산림자원학과 교수로 퇴직한 김용환(사진 왼쪽) 전 교수가 지난 2월 23일 임상규 총장을 찾아 제자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씨달라며 1억원의 발전기금을 기탁했다.

지난 1994년 2월 순천대학교를 정년 퇴임한 김 전 교수는 이번 기금을 산림자원학과에 지정 기탁하였다. 그는 “가정경편이 곤란하여 학업이 어려운 학생과 산림자원학 분야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은증기자 ejkim@

삼성전자가 후원하는
이 대회에는 16개국 선수
가 참가해 토너먼트
방식으로 우승자를 가린다.

아쉽게도 프리스타일
축구의 종주국인 우리나라
는 국제대회 성적이 좋지
않아 출전자격을 얻지 못했다.

우 교수는 선수로 활동하던 2003년에는 네덜란드 프로축구 야외스 구단이 주최했던 세계 대회 초대 팀으로 을

랐던 인연이 있다. 그는 브라질 축구 스타인 호나우지

뉴와 함께 유명 스포츠 품업체의 광고제작에 참여하

고, 독일 5부리그 팀에서 3년 동안 선수 생활을 하기

도 했다. 그는 1989년 5시간6분30초 동안 한 번도 공

을 떨어뜨리지 않고 연기를 펼치는 고난도 기술

이 필요하다.

/연합뉴스

‘축구 묘기 아티스트’ 우희용씨

세계프리스타일축구 심사위원장에

‘축구 묘기 아티스트’로 이름을 날려온 우희용(47) 서울 중앙예술원 체육과 교수가 프리스타일 축구의 세계 챔피언을 뽑는 국제대회의 심사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았다.

세계프리스타일축구연맹(WFFF) 회장으로 활동하는 우 교수는 오는 4~5일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열리는 제1회 MOTG 세계선수권대회의 심사위원장으로 초청받았다고 1일 밝혔다.

MOTG는 ‘마스터스 오브 더 게임(Masters of the Game)’의 머리글자를 조합한 것으로, 프리스타일 축구 기술의 최고 권위자를 뽑는 행사다. 프리스타일 축구는 축구공을 발로 어깨, 가슴, 머리 등 온몸을 이용해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연기를 펼치는 고난도 기술이 필요하다.



우연히 있다. 그는 브라질 축구 스타인 호나우지 뉴와 함께 유명 스포츠 품업체의 광고제작에 참여하고, 독일 5부리그 팀에서 3년 동안 선수 생활을 하기도 했다. 그는 1989년 5시간6분30초 동안 한 번도 공을 떨어뜨리지 않아 최장시간 헤딩으로 기네스북에 올랐다.

/연합뉴스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7-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28 FAX (062) 222-4938, 222-4918

상담. 062-223-9191, 062-232-9192.

부모

▲이학현씨 별세 길호·길태·길례.

▲정주혜씨와 김현숙씨, 김현숙씨는 2011년 3월 2일(수)에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5분향소에서 안락사로 별세했습니다.

▲박현숙씨와 김현숙씨는 2011년 3월 2일(수)에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5분향소에서 안락사로 별세했습니다.

▲정현숙씨와 김현숙씨는 2011년 3월 2일(수)에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5분향소에서 안락사로 별세했습니다.

▲정현숙씨와 김현숙씨는 2011년 3월 2일(수)에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5분향소에서 안락사로 별세했습니다.

▲정현숙씨와 김현숙씨는 2011년 3월 2일(수)에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5분향소에서 안락사로 별세했습니다.

▲정현숙씨와 김현숙씨는 2011년 3월 2일(수)에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5분향소에서 안락사로 별세했습니다.

▲정현숙씨와 김현숙씨는 2011년 3월 2일(수)에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5분향소에서 안락사로 별세했습니다.

▲정현숙씨와 김현숙씨는 2011년 3월 2일(수)에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5분향소에서 안락사로 별세했습니다.

▲정현숙씨와 김현숙씨는 2011년 3월 2일(수)에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5분향소에서 안락사로 별세했습니다.

▲정현숙씨와 김현숙씨는 2011년 3월 2일(수)에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5분향소에서 안락사로 별세했습니다.

▲정현숙씨와 김현숙씨는 2011년 3월 2일(수)에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5분향소에서 안락사로 별세했습니다.

▲정현숙씨와 김현숙씨는 2011년 3월 2일(수)에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5분향소에서 안락사로 별세했습니다.

▲정현숙씨와 김현숙씨는 2011년 3월 2일(수)에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5분향소에서 안락사로 별세했습니다.

▲정현숙씨와 김현숙씨는 2011년 3월 2일(수)에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5분향소에서 안락사로 별세했습니다.

▲정현숙씨와 김현숙씨는 2011년 3월 2일(수)에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5분향소에서 안락사로 별세했습니다.

▲정현숙씨와 김현숙씨는 2011년 3월 2일(수)에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5분향소에서 안락사로 별세했습니다.

▲정현숙씨와 김현숙씨는 2011년 3월 2일(수)에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5분향소에서 안락사로 별세했습니다.

▲정현숙씨와 김현숙씨는 2011년 3월 2일(수)에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5분향소에서 안락사로 별세했습니다.

▲정현숙씨와 김현숙씨는 2011년 3월 2일(수)에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5분향소에서 안락사로 별세했습니다.

▲정현숙씨와 김현숙씨는 2011년 3월 2일(수)에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5분